

청년정책, ‘지원’에서 이제는 ‘삶의 설계’로

카워드로 보는 名畫 이야기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답이 없는 삶의 문제

명화를 바라보다 보면 때때로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특히 그렇다.

그의 그림에는 익숙한 사물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돼 있다. 나무 사이의 틈과 나무의 몸통 사이를 관통하는 말을 탄 사람의 형상이 뒤섞여, 익숙한 현실은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진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의 전부인가?” 요즘 청년정책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이 떠오른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청년정책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일자리, 주거, 교육, 창업, 금융,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정책과 지원사업이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쯤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순간이 왔다.

우리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삶을 온전히 담아낸 정책 “네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앞서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책의 방향은 상당히 달라진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지원 중심의 정책도 물론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청년의 삶은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취업을 했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거가 안정됐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일 자리를 얻었지만 지역에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지만 교육과 금융,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르네 마그리트 작 '백지 위임장'

〈위키피디아 검색〉

결국 청년의 삶은 수많은 요소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수능을 준비하며 고생했던 학창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수학, 영어 등 많은 지식을 가르쳤지만, 정작 우리가 사회에 나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행복한 삶인지.

게다가 결혼과 출산, 주거와 직업, 경제적 독립과 인간관계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식은 배웠지만,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배울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말이다.

어쩌면 청년정책도 비슷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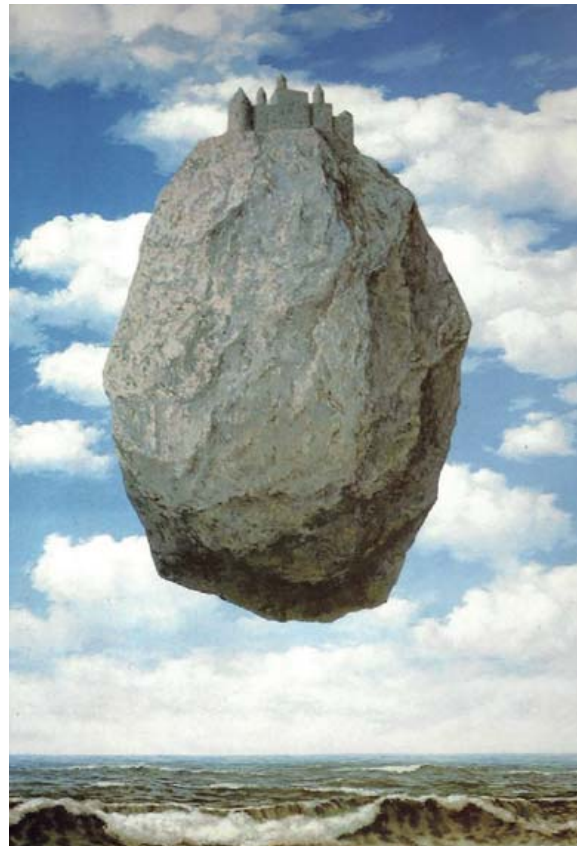
‘10여 년을 지나며 청년정책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정작 청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수능을 지나 대학을 넘어 대학원에 진학해 필자가 유독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다르다. 예술은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한다. 청년정책에도 이런 상상력과 선택의 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청년에게 “이것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선상에 놓



르네 마그리트 작 '피레네 산맥의 성'

〈위키피디아 검색〉



르네 마그리트 작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위키피디아 검색〉

여있는 청년정책.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년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청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청년의 삶 역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전남에 거주하면서 광주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도 있다. 한 지역에서 창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주거와 교육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역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진 개별 사업의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일자리·주거·교육·문화·창업·복지가 하나의 삶에 경로 안에서 연결되는 정책.

그리고 청년이 자신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정책.

필자는 이것이 통합특별시 청년정책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결국 청년정책은 청년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이 청년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자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일이 아니다. 청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더 많은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이 이 지역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청년이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서 “청년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로 정책의 질문이 바뀌면 정책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어쩌면 거창한 정책보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년정책이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남·문화비평/캘러리현대표〉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평온한 공간,
가족의 그리움까지 품는 친환경 수목장.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문의 : **062-464-9190**